

부록

4(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주제별 속담>

학습 목표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교과서
학습자	2학년 ()반 ()번 이름 ()	

[노력]

속담	뜻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꺾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고인 물이 썩지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하여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변질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

속담	뜻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	누구나 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는 말.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질은 할수록 준다	말은 퍼질수록 보태어지고, 물건은 옮겨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
말이란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아주 다르게 들린다는 말.
말이 말을 만든다	말은 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한다는 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하렸다]	상황이 어떻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신중]

속담	뜻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쉽고 작은 일도 해낼 수 없으면서 어렵고 큰 일을 하려고 나섬을 이르는 말.
길고 짧은 것은 대어[재어] 보아야 안다	크고 작고, 이기고 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실지로 겨루어 보거 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써라	말과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야 한다는 말.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말.
일곱 번 재고 천을 짜라	무슨 일이든 낭패를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동해야 함을 이르는 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 이 없음을 비꼬는 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식은 죽도 불어[쉬어] 가며 먹어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함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욕심 / 절제]

속담	뜻
남의 고기 한 점이 내 고기 열 점보다 낫다	자기 것은 두고 욕심 사납게 남의 것을 공연히 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먹을수록 남남한다	먹을수록 욕심이 나서 더욱더 먹고 싶어 함을 이르는 말.
못 먹는 감 찢어나 본다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갖지 못하게 못쓰게 만들자는 뒤틀린 마음을 이르는 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라도 메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메울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홉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부러워한다	「1」 욕심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 하면 그 가운데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말.
닫는 사슴을 보고 얻은 토끼를 잃는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새가 방앗간[울조밭]을 그저 지나라	「1」 욕심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가만있지 못한다는 말. 「2」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